

민주화운동의 근거

조미애

1996년 3월 학교에는 밤이 없었다. 학생회마다 꺼지지 않는 불빛 아래에서 학생들은 단식과 혈서로 학교의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었다. 우리의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예결산안을 공개하고 성의있게 협상에 응하라는 학생들의 요구는 무시된 채 등록금 납부를 유보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제적의 위협만이 가해졌다. 학교 당국은 학교의 3주체로서 학생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의 총학생회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부모님의 주름과 병은 더욱 깊어가는데 우리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등골이 빠지는 부모님의 희생을 등쳐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노수석이라는 연세대 학생이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집회 과정에서 죽었다. 등록금 인상 반대와 교육재정 확보라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개별적인 학교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학교와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고 대선자금에 대한 비리 의혹만 늘어나고 있었다.

유래 없던 후배들의 강도 높은 투쟁에 당황스러운 것은 학교뿐만이 아니었다. 졸업을 하고 이제 삼자의 입장이 된 나도 후배들의 투쟁이 놀랍고 자랑스러웠다. 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 정책국장인 회정이가 단식

을 결의했다. 단식을 하던 중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몇몇 학생들이 쓰러졌다. 노수석 열사가 죽었던 집회 현장에서 무리를 한 듯싶었다. 결국 열흘간의 단식이 끝나고 나는 친구와 후배를 찾아 죽 한 그릇을 끓여 주었다. 오랜 단식에도 먹고 싶은 게 기껏해야 초코파이와 흰 우유, 떡볶이뿐인 친구의 소박함에도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었다. 이를 뒤 나는 새벽 2시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울먹이며 말을 잇는 선배의 전화는 회정이의 죽음을 전하고 있었다. 장례식장에 가자는 말에 택시기사님은 말을 잇지 않았고 그 정적 속에서 나는 내내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절망과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던 그때의 심정을 나는 지금도 쉽게 잊기가 힘들다. 뉘 나간 회정이의 어머니가 나를 보시고는 오열하셨다. 학생회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쁘게 단장하고 찍었던 후보 사진은 영정 사진이 되어 그 쓰임새를 다하고 있었다. 장례식장에 학생들의 조문이 줄을 이었다. 자식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통곡이 넘쳐나고 있었다. 해마다 4월이면 진달래와 목련으로 아름답던 교정에 검은 만장기가 뒤덮었고 슬픔과 분노로 뒤섞인 학생들의 울부짖음이 넘쳐났다. 24살 권회정의 죽음으로 우리는 그해 학교 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추모사업회가 만들어졌고 1년 뒤 우리는 마석 모란 공원에 회정이의 가묘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1996년의 봄은 사라진 계절이 되었다.

벌써 7년 전의 일이다. 계절은 매년 반복되지만 세월은 끊임없이 흘러간다. 가을이 주는 낭만도 생활의 무게에 눌러 빛을 잃고 세월이 주는 변화에 어느덧 나는 32세의 노처녀가 되었다. 화려했던 20대도 30세라는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고 나니 꿈만 같던 시절로 기억될 뿐이다. 절대 명령처럼 느껴지던 민중과 진보에 대한 열정도 지금의 나에겐 그 가치만큼이나 나를 짓누르는 중압감으로 남아 있다. 80년대 학번이 얻은 명예

도 없고 이젠 그저 생활에 충실하며 사는 나이지만 그래도 나에겐 열사라는 이름의 친구가 있다.

가끔 나는 선생님이 된 그녀의 모습을 상상해 보곤 한다. 죽지 않았다면, 이 땅의 역사가 좀더 순탄하였다면 그녀는 누구보다 훌륭한 교사가 되었을 것이다. 소박한 교사의 꿈을 품고 사범대에 입학하였던 그녀가 대학생활을 하며 자신의 소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원래 그녀에게는 위로 죽은 형제가 셋이나 있다고 한다. 실제로는 넷째이지만 현실로는 첫째인 그녀는 그렇게 손 귀한 집에 태어나다 보니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위험하다는 이유로 시내에도 나가지 못할 만큼 귀하게 자랐다. 항상 부모님의 보호 속에서 곱게만 길러졌던 그녀에게 고등학교 시절 겪었던 중대한 사건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80년대부터 이미 잉태하고 있었던 참교육의 열기와 이제까지 입시를 위한 기계로만 취급받았던 청소년들의 의식이 성장하던 시기 고척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그녀도 자율과 인권이 억압받는 사회적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 학내 교지의 자율권 침해 문제로 시작된 학생들의 농성과 전교조 선생님들의 움직임에 학교측은 공권력을 끌어들여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구타와 제적, 해직과 연행으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요구는 목살되었고 학생들과 전교조 선생님들이 알리고자 했던 진실은 매도당하고 왜곡되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자 했던 학생들의 몸부림과, 역사와 현실에 대해 올바르게 전하고 아이들에게 참된 교사로서 당당하고자 했던 선생님들의 노력이 기득권 세력의 거대함에 짓눌리고 희생당하는 상황은 열사에게 너무나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이 일로 그녀는 오히려 사회에 저항하는 것 자체에 대한 회의를 품었고 고 대학에 들어가면 소위 운동권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도 않겠다고 결

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의 본성은 이 땅의 역사와 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다.

대학 1학년 시절 그녀와 나는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다. 운동권과 가장 멀 것 같아 선택했던 동아리는 그녀의 예상을 빗나갔고 그곳에서 만난 나 또한 전교조 세대로서 의식을 갖춘 상태였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배들과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뛰고 넘어지고 최루가스가 넘쳐나는 거리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동기였다. 전경과 대치하며 미세한 떨림으로 두려움을 대신하였고 손끝으로 느낀 두려움은 다시 희망을 전하기도 하였다. 치열한 시위에서 그녀의 흰 티셔츠 위로 선명히 찍혔던 운동화 자국도 나에겐 상처이자 가슴 아픈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다. 꿈 많고 욕심 많던 소녀에서 대학생이 되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거리로 내몰았는지…

나는 흔히들 얘기하는 ‘운동권이었던’ 사람이다. 빛바랜 표창장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한때나마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그 시절의 기억은 나에게 현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자량거리 중 하나이다.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시절의 기억. 나에게 그 기억이 주었던 운동의 삶과 투쟁에 대한 실천적 자세는 사회 현실이 주는 구체적 과제와 논리로 제어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진실을 알고 진실을 알리고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에게 저항하는 자세야말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가장 근본이 아닐까. 나는 열사가 되기 전의 그녀의 삶에서 사람다움에 대한 근본을 배웠다. 명예도 담보되지 않고 그 혼한 학생회 간부의 감투 하나조차 제대로 없었던 그녀였지만 저항의 삶 자체를 기계적 충실이 아닌 자신의 삶 자체로 변화시켜 나갔다. 우리가 믿는 변혁의 과제가 사람에게서 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곧 투쟁이고 역사이고 민주화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제 열사가 되어버린 그녀의 삶은 죽음

의 의미 이상으로 그녀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현실을 살아가는 모범의
잣대가 되고 있다.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던가. 일
찌감치 부모 품을 떠나 민주화와 통일에 목숨을 던진 자식을 가슴에 품
고 이제는 투사가 되어버린 열사의 부모님은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자
식의 한을 대신하고 계시다. 1996년 벽제 화장터에서 오봉산 기슭까지
그녀의 죽음을 따라가며 뺏가루 한 줌만 학교에 뿌리자고 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빌었다. 아버지는 그 어떤 명분보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그
리고 그 자식을 지켜주지 못했던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분노하고
계셨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얘기하시곤 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회정이
를 아끼는 줄 몰랐어. 시체를 부검한다기에 못할 짓이다 싶어 그렇게 했
었는데 지금은 너희들에게 참 미안하다.” 학생들의 조문을 반대하고 학
교측의 회유에 말려들 뻔했었던 부모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진정
으로 회정의 죽음을 아파하는지, 그리고 자식이 죽으면서까지 그렇
게 이루고 싶었던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는 이런 식으로 자식
을 잃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셨다.

1999년 11월부터 시작된 422일간의 여의도 천막농성에서 회정의
어머님은 오랜 질병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머님들과 함께 투쟁하셨다.
많은 자식들과 가족의 한을 대신하고자 한 유가협과 추모단체의 이 오
랜 농성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과 ‘의문사
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제정’ 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일구어 내었다. 오
랜 시간을 기다리며 권회정이가 무슨 열사냐는 모진 소리에 상처받기
까지 하면서 회정의 부모님은 이제 자식의 한을 자신이 대신하지 않
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다. 돌아오지 못할 자식이지만 부모님들에게
는 그들의 죽음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자식들이 이루고자 하는 세
상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하신다.

독재와 분단이라는 오랜 굴레로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서는 수많은 열사와 양심수들이 있어 왔다. 민주화의 역사는 바로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투쟁에 의해 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희생되었던 열사들의 죽음은 공권력과 기득권 세력의 지배 논리에 의해 가려져 드러나지 않았던 투쟁의 순수성과 민중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갈망이 담긴 많은 양심적 운동가들의 삶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제 민주화운동 관련자,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은 단순한 고통과 상처에 대한 보상과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차원이 아닌 청산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그들이 희생되었던 죽음의 배경을 명백하게 밝혀내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그 책임자들을 엄중히 심판해야 할 것이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한층 더 늙으신 부모님은 회정이 있는 모란에 하루가 멀다 하고 가신다. 이 땅에서 다시는 열사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할 부모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고 열사의 희생과 그들의 뜻이 이어가야 하는 것은 이제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다. 빼이픈 기억이지만 그 기억을 제대로 되살려야 우리에게 그것은 더욱 희망찬 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최근 권희정 열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 과정에 서 기각되어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다.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 배경이 된 등록금 투쟁은 사학 재단과의 대립에 의한 것이므로 공권력에 의한 희생으로 볼 수 없고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김영삼 정권은 권위적 독재정권이 아니므로 권희정 열사의 죽음은 민주화운동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몇 년간의 기다림 속에 얻은 결과는 부모님과 우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죄로 권희정 열사의 어머니는 다시 찬바닥에 앉아 농성을 하였다.

‘민주화 운동의 근거…’ 이 말은 오랜 시간 나를 괴롭히고 있다. 열사의 죽음을 현상적 차원으로 단순화하고 김영삼 정권을 도덕적 정권으로 인정해야 하는 그 말에 나는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시절에 대한 소중한 기억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 등록금 투쟁이 죽음의 현상적 이유가 되었지만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이 없었다면 그녀는 등록금 투쟁을 하지도,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열흘간의 단식투쟁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소중한 꿈을 희생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사람들의 기대를 깨버린 삼당합당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말하였던 김영삼이 대통령 당선 초기 약속했던 ‘GNP대비 교육재정 5% 확보’라는 약속만 지켜어도 해마다 15%씩 오르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야 할 국가 재정이 조금이라도 교육재정에 돌아갔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등골도 덜 휘었을 것이다.

세상이 좋아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이런 보상도 가능하다 한다. 한편 열사를 두 번 죽이는 행동은 하지 말라고 한다. 심의 과정이 어떠한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치러야 하는 판단들이 또 후대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심판으로 이어질지는 각오해야 할 것이다. 상처 많은 이 땅에 더 이상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끔 나는 굳어진 머리와 식어버린 심장이 멈추진 않았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생활의 무게란 때로 나를 이렇게 무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버렸다. 하지만 권회정이라는 이름 하나가 울리는 순간 나는 다시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곤 한다.

추운 겨울이다. 이 겨울 또다시 나를 흔들어 놓은 아픔에 대한 기억은 나의 얼어버릴 뻔한 심장을 두드리고 있다. 열사의 죽음 외에 민주화 운동의 근거가 더 필요하다면 새카맣게 타버린 부모님의 심

장과 내 상처받은 기억이라도 꺼내어 보여주어야 할까. 열사를 두 번 죽이지 말라. 나는 오늘도 힘차게 고동치는 내 심장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

권희정 1973년생. 1996년 성신여대 졸업 후 총학생회 정책국장으로서 일하던 중 김영삼 정권의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학원자주화 투쟁과정에서 열흘간의 단식을 치른 뒤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현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본 심의 과정에서 기각,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다.

— 자료참고 : 추모연대 <http://www.yolsa.org> 권희정 열사추모사업회 <http://www.danbi.org>

조미애 macho1016@empal.com | 권희정 열사의 학교 동료이며 현재 '권희정열사추모사업회'에서 활동하고 있다.